

미래 개인·가계의 금융니즈(needs)

「일본은 부유해졌다」고들 말한다. 매일의 소비생활을 보면, 풍부한 물자가 넘치고 있고, 레저등의 서비스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이와같은 풍요로움이 일부 사람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미치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는 국민의 오랜 노력에 의해 국민총생산(GNP)이 커진 것과 그 분배가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한층 더 충족스럽게 되면, 그 관심은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지향하게 된다. 금융서비스는 이러한 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 개인·가계를 둘러싼 금융서비스

개인·가계를 둘러싼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측에서 보면,

- (1) 예저금등 가계의 금융자산형성에 관련된 자금의 受入機能
- (2) 주택대부등 가계에의 자금대부기능
- (3) 각종 공공요금이나 신용카드(credit card) 등의 지급에 관련

된 결제기능

이상의 3개기능은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가계의 수가 기업의 수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고, 또한 1건당 금융거래 단위가 작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측에서 보면, 「높은 비용(high cost)」의 거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못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혁명은 자유경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가계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예저금금리의 상승등으로 가계는 이익을 얻었으나 동시에 금융기관이 서비스대상의 가계나 지역에 너무 무리한 저축권유를 했기 때문에 가계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도 금융의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가계의 다양한 금융니즈가 높아지고 있음은, 1970년대의 미국의 경험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의 검토는 금후의 대응을 생각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종래에 자칫하면 금리면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가계의 입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될 수 있는한 많은 가계에 평등한 서비

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금융 서비스인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에 서는 이런 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하다.

2. 금융자산 형성의 현상과 문제점

먼저 가계의 제1의 금융니즈인 금융 자산 형성의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일본인은 「저축선호」의 국민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확실히 국제비교통계등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가계저축율은, 선진제국중에서도 높으며, 그 결과 가계 금융자산의 축적도 진행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자산·소득 비율이라는 숫자가 잘 이용된다. 이는 금융자산보유액 합계를 年收로 제한 비율이며, 금융자산만으로써 몇년간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60년대 고도성장기에 1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어, 선진국과 비교해서, 「축적부족」의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이 비율이 급상승하여 70년대 중반에는 유럽제국의 수준을, 그리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수준(2前後)을 넘어 주요국 중에서도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게 되었다.(가계가 보유하는 금융자산 데이터(data)는 한정된 수의 나라에서 밖에 얻지 못하므로, 일본의 수치가 세계 제1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계의 top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 한편 외국환시장에서 주어지는 비율의 달리로 환산한 1인당 가

계의 금융자산액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을 상회하고 있다. 평균치로 보는 한 일본의 가계는 다액의 금융자산을 갖는 「부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수준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자산에 있어서, 세대간의 보유액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행의 「저축에 관한 세론조사」에 의하면, 1988년의 1家計당 금융자산 보유액은 821만엔인데, 5백만엔 이하의 자산액 보유자의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다액의 자산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가계숫자가 평균치를 끌어올려, 서민감각보다 높은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3. 자기증식하는 금융자산의 격차

금융자산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금융자산이 자기증식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 배당등의 수익이 기대되고, 그 외에도 주식등의 유가증권은 주가의 상승에 의한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선택에 있어서는

- (1) 필요한 때에 현금화가 용이한가 (유동성)
 - (2) 원본(元本)이나 수익이 보증되고 있는가(안전성)
 - (3) 기대되는 수익의 원본에 대한 비율이 높은가(수익성)
- 이상의 3가지 점을 기준으로 선택된

2. 금융자산 형성의 현상과 문제점
3. 자기 증식하는 금융자산의 격차

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일 수록 유동성, 안전성의 면에서는 제약이 있다. 예컨대 우체국의 통상저금이나 은행의 보통예금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고, 원본도 보증되고 있지만, 수익성은 낮다. 한편 우체국의 정액저금이나 은행의 정기예금은 원본보증이 있어 통상예금보다도 수익성은 높으나, 유동성 면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다. 뿐만 아니라 MMC와 신탁은행의 대부신탁인 경우, 원본보증하에 수익성은 더욱더 상승하는데, 유동성은 저하한다. 주식의 수익성은, 추가상승의 기대를 포함하면, 상기의 금융상품을 뺀다면, 투자자금이나 주식의 하락으로 감가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 금융자산의 보유상황에 대한 각종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총액이 큰 가계일수록, 다종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보유총액이 적은 가계의 금융자산은 유동성,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만 집중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결과 고액의 자산보유자는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을 재투자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4. 금융자산보유의 동기와 상품개발

금융상품의 보유형태가 보유총액의 규모에 따라, 상기한 바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기로서

- (1) 소득이나 지출액의 일시적 변화라든가 질병, 재해등의 돌발적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 (2) 자녀교육, 결혼자금이나 대형 내구소비재, 대형 레저에 대비하기 위해
- (3) 주택, 토지의 구입을 위해
- (4) 이식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중 (1)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2)는 유동성은 약간 낮아도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된다. (4)는 위험성이 다소 있지만 고수익인 상품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3)은 (2)와 근사한 성격이 있지만, 약간 (4)의 요소도 가미되고 있다. 가계의 자금계획은 보유액이 증가함에 따라 (1)에서 (4) 방향으로의 이동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상술한 통계적 관찰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험은 약간 특수한 지위에 있다. 즉 보유동기는 (1)에 가까운 것이지만, 예금등의 범위를 초과하는 큰 위험을 보험에 의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포기하고 있는 특수한 금융자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다양한 니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여러종류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금융 자유화의 진행에 따라 개발경쟁도 격화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가계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지만, 상품개발이 다액거래자를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금융의 자유

화에 수반한 비효율적인 支店등을 정리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되고 있어, 금융서비스의 지역격차가 발생할 것이 걱정되고 있다. 우체국은 우편저금이 간이보험에 의하여 소액거래의 가계를 고객으로 해왔고, 전국 방방곡곡에 배치되어 있는 우체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금융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금융자유화의 마이너스면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적 금융기관의 성격에 적절한 것이다. 즉 우체국은 경영의 효율화와 자금의 운용노력에 의하여, 소액거래자에 대하여 가급적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고정객을 보유하고 있는 정액저금이나, 90년 4월부터 실시한 소액 MMC의 예입한도의 인하등은 높히 평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후 일층더 노력하길 기대한다.

5. 가계에의 대부서비스

일본 가계에의 대부서비스는, 미국이나 유럽제국에 비하여 낙후되고 있었는데, 1980년대 금융시장의 완화기조를 반영하여, 큰 신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수준과 비교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는 주택의 구입이나, 중고년령층의 경제부담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교육비에 관련된 대부수요는 매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가의 상승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서의 주택구입이 곤란해진 대도시권등에서는, 2세대에 걸쳐 차입금을 변제하게 하는등의 새로

운 방식도 개발되고 있다. 한편 젊은 층을 중심으로하여 대형 내구소비재라든가, 대형 레저를 위해, 소비자 로운(loan)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은 차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화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결제수단의 변화에 수반하여, 가계의 대부에 대한 수요는 일층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는 도시은행, 지방은행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렀지만, 구미의 저축은행등의 섬세한 서비스와 비교하면 충분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대부서비스는 법적인 규제등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분야에 머무르고 있는데, 금후의 금융자유화에 대비하여 다면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6. 우체국의 금융활동과 정보네트워크

금융결제면에서의 최근의 변화는 현저하다.

컴퓨터의 이용에 의한 정보네트워크의 발전은 복잡한 결제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효과는 우선 기업간의 거래에 효율화를 촉진시키는데 나타났으나, 가계를 둘러싼 금융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 (1) 가계를 비롯한 소액거래의 코스트(cost)가 경감되는 것
- (2) 금융상품에 부가서비스를 첨가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것(우편저금을 기초로한 신용카드의 발행등

5. 가계에의 대부 서비스
6. 우체국의 금융 활동과 정보네트워크

은 그의 한 예임)

- (3) 중앙에 집중하기 쉬운 금융서비스가 지방에서도 이용될 수 있게 되는 것
- (4) 금융자산의 관리, 운용, 대부서비스, 결제서비스등을 결합한 홈·뱅킹(home banking)이 가능하게 되는 것.

등등이 예상된다.

종래 우체국의 금융활동은 자금의 수입면에 편중하는 경향이었으나, 보다 광범한 활동에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다수의 소액거래자를 고객으로 했던 과거의 실적과 전국 방방곡곡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보네트워크는 귀중한 재산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재산에 근거하여 「가계의 메인뱅크(main bank)」로 되는 것이 우체국의 장래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조구찌 도시유키,
一橋대학경제연구소장)
(우정, 1990. 3)